

**파리 에어쇼,
항공기 수주 활발**

에어쇼에서는 항공우주업체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6월12일 유럽 콘소시엄인 에어버스사가 약 15억달러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4개국 콘소시엄인 에어버스사의 이같은 계약은 이번 에어쇼 최대규모로, 독일 루프트한자사가 1백24인승 에어버스 A319 제트기 20대를 주문했고 에어 캐나다사가 동일한 기종 10대를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잉사는 6월14일 한국의 대한항공을 비롯해 일본의 전일본항공(ANA), 홍콩의 캐세이퍼시픽, 타이의 TAI 등 아시아 4개 항공사로부터 이 신형 여객기 31대를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0대는 신규 수주이며, 나머지 11대는 기존에 주문한 다른 종류의 비행기를 이 기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총 계약규모는 31억달러라고 보잉측은 밝혔다.

777-200S 18대를 주문해 놓고 있는 전일본항공은 10대를 15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했고 TAI는 6대를 사들이기로 했다. 캐세이퍼시픽은 이전에 주문한

777기종 11대 가운데 7대를 777-300X로 바꾸기로 했다.

또 영국항공우주사와 사브 AB사는 스웨덴의 그리펜 제트전투기의 합작수출 및 제작계약을 체결했다. 그리펜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항공 미라주 2000, 러시아의 미그 29, 미 맥도넬더글라스 F-18 뿐 아니라 미록히드 마틴 F-16기와 경쟁하게 된다.

우주분야에서는 유럽 콘소시엄인 아리안스페이스사가 앞으로 5년간 신형 아리안 V 상업로켓의 부품을 생산하고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쿠루에 위치한 발사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내용의 50억 프랑(미화 10억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독일 비행기 제작사 다임러-벤츠 아에로스페이스 AG(DASA)의 자회사인 네덜란드 포커사도 20대의 새 항공기 제작을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활발한 거래는 최근 침



파리 에어쇼에서 인기를 끌었던 세계최대의 수송기 A300-600ST "Super Transporter" Airbus 파트너가 제작한 항공기 부품들을 운반하는데 사용된다

체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에 바람직한 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년간 우주항공산업 성장율은 미국에서 16% 하락했으며, 지난해 프랑스에서 12%, 독일에서 31% 떨어졌다.

**대만, 미국과 헝기
합작생산**

리덩후이(이동휘) 대만총통의 방미를 계기로 미로부터 보잉777 항공기 17대를 구입한 대만이 최근 미항공사와 합작으로 군용·

민수용의 헬리콥터를 생산키로 합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6월 14일 보도했다.

대만의 항공부문 관계자들은 이미 파리에서 미코네티컷주에 본부를 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시코스키 항공사와 군용민수용으로 쓰이는 22인승 헬리콥터 합작생산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대만은 헬리버스로 명명될 이 S-92 쌍발엔진 헬리콥터의 기수 부분을 생산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항목과 비용등은 아직 결정지 않았으며, 미항공사는 또 다른 합작사를 선정하기 위해 중국, 일본, 브라질, 스페인의 항공사등과도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항공기 제작산업 호황 전망

국제 민간여객기 수요는 앞으로 20여년간 약 1만6천여대를 웃돌아 항공기 제작산업이 큰 호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디벨트지가 6월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 항공기제작사인 DASA의 시장분석자료를 인용, 오는 201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여객기 수요가 폭증, 미국을 제

외하고도 1만6천7백여대(8천3백 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중 70인승 이하의 소형 여객기 수요는 5천80여대(4백70억달러)에 달할 것이며 70인승 이상 중대형 여객기 수요는 1만1천7백대(7천8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DASA는 전망했다.

DASA측은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기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제작비용절감이 관건이라고 보고 오는 98년까지 제작비용을 30% 줄인다는 목표 아래 중장기시장전락을 수렵중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삼성항공, 항공기 엔진정비 해외시장 본격 참여

삼성항공(대표 이대원)이 항공기 엔진정비 부문의 해외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 했다.

삼성항공은 최근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인 미국 ALLISON사로부터 C-130 수송기 및 P-3C 대잠초계기에 장착되는 T56 터보프롭 엔진과 500MD 헬기에 장착되는 A250 터보축 엔진의 공인 정비창 업체(AMC : Authorized Maintenance Center)로 인증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증으로 동 시는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되는 엘리스사 제품의 모든 하자 보증작업을 맡게 되며, 해외 항공기 엔진 창정비 수주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어 향후 6년간 1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예상하고 있다.

대우중공업, 항공기검사용 X-Ray 시스템 개발

대우중공업은 항공기구조물을 검사할때 X레이 투사와 동시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리얼타임 X레이시스템을 개발했다고 5월 15일 발표했다.

신제품은 기존의 X레이설비에 이미지 프로세서를 결합함으로써 X레이투사와 동시에 모니터를 통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우중공업은 신제품을 현재 생산중인 에어버스 320 엔진부품의 결함을 확인하고 초동훈련기 KTX-1과 F-16전투기등의 내부 구조물 검사에 사용할 계획이다.